

“비움으로 새로운 것을 채웠죠”

우제길미술관, 청년작가 김은지 개인전
‘하늘’ 주제 내달 5일까지 회화·영상 선포

수평선과 하늘이 맞닿은 곳에 태양의 붉은 궤적이 늘어져 있다. 아침해가 떠오르는 중일까. 석양이 넘어가기 직전의 모습일까. 해를 연상케하는 수평선의 색조는 자유로움과 함께 관객들의 시적 상상력을 자극한다.

“하늘은 공허함과 외로움이기도 하고 희망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하늘색은 날씨와 분위기에 따라 다른 느낌을 선사하죠. 관객들이 열린 마음으로 여유롭고 자유롭게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제길미술관이 청년작가 김은지(31)의 개인전 ‘Ha Neul’을 선보이고 있다. 오는 11월 5일까지 하늘과 관련된 회화 30점, 영상 1점의 작품을 전시한다.

전시 주제인 ‘Ha Neul’은 우리말 ‘하늘’을 영어로 그대로 옮겨 쓴 것이다.

작가는 “광주비엔날레 기간이기도 해서 외국인들의 방문이 많아 하늘을 소리나는데로 영어로 옮겨 써보았다. 단순하지만 한글의 의미를 전달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untitled’

이번 전시는 작가의 6번째 개인전이다. 국민대 회화과와 동대학원 석사를 마치고 중앙대 첨단영상대학원에서 예술공학과 박사를 수료한 작가는 올 초 고향인 광주로 내려와 운림동에서 작업에 전념하고 있다.

앞서 지난 8월에는 갤러리 리채 청년작가에 선정돼 ‘하늘바라기’ 전시를 선보이기도 했다.

8일 전시장에서 만난 작가는 “광주로 내려오면서 하늘과 바다, 수평선을 화폭에 담아내고 있다. 여백을 통해 무엇을 드러내기 보다 비움으로써 새로운 것을 채웠다”고 말했다.



김은지 작가가 우제길미술관에서 ‘하늘’을 주제로 6번째 개인전을 열고 있다.

작가는 또 “그라데이션 등 색으로 임팩트를 주는 작업을 예전부터 시도해보고 싶었다. 광주에서 작업하며 우제길 화백의 추상 영향도 받게 됐는데 당분간 이 작업을 지속해 나가고 싶다”며 “불안하거나 우울할 때 누군가 공감해주면 위로가 되듯 작품을 통해 관객이 그런 감정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에는 2008년 작가의 유학 시절 대형 작품인 ‘ocean beach’ 등도 함께 선보인다. 청년작가의 풋풋한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다.

작가는 이번 전시 이후 내년 1월에서

울의 갤러리 도스에서 개인전이 예정돼 있다. “앞으로 광주에서 작업하며 단체전 등에도 많이 참가해 교류의 폭을 넓히고 싶다”는 바람을 덧붙였다.

우제길미술관 김치순 관장은 “아름다운 계절에 캔버스에 하늘을 가득 담은 김은지 작가의 작품을 선보이게 됐다”며 “작가의 작품은 아름다운 날들을 미처 느끼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평화로운 하늘을 보여준다. 때문지 않은 순수함이 돋보이고, 우제길미술관의 분위기와도 잘 어울린다”고 말했다.

문의 062-224-6601. /이연수 기자

빛·그림자·소리 어우러진 이색 미디어아트 작품 선포

문화재단, 미디어 338 하반기 전시 ‘완전한 생성기’

광주문화재단은 ‘미디어 338’ 하반기 공모 선정작 두 번째 전시 ‘완전한 생성기’ (The Perfect Generator)를 오는 11월 3일까지 진행 중이다.

이번 전시에 참여하는 윤혜린, 이정우 작가는 빛과 그림자, 그리고 그 사이를 거니는 관객의 존재를 소리로 변주해내는 이색적인 미디어아트 작품을 선보인다.

주제인 ‘완전한 생성기’는 모든 것을 감지하고 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 혹은 컴퓨터가 추적하는 데이터의 근원이 되는 인간을 뜻한다. 제공자와 사용자라는 이분법적 믿음 사이에 섞인 신선한 미디어를 의미한다. 이에 두 작가는 관객이 지나칠 수밖에 없는 동선에 작품을 설치해 관람객의 그림자를 유도하는 독특한 작품을 구상했다.

두 작가는 공동작업한 ‘Mingle, The Coutour, Preset 2018’ 3개의 미디어 설치 작품으로 관객과 만난다.

‘Mingle’은 색의 조합을 카메라로 인식한 것을 재가공해 소리로 전환한 작품이다. 합성의 과정에는 빛



‘Preset2018’

의 색 뿐 아니라 관객의 그림자 또한 영향을 미쳐, 소리를 변조하기 위해 컴퓨터가 이용하는 ‘변수’가 된다.

‘The Coutour’는 프로젝션 작품으로 우연성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선택지를 쌓아 지형을 만든다. 우리는 자신의 의지로 원하는 형태의 지형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컴퓨터가 만들어낸 선택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에 불과하다.

원기둥 모양의 조형물 ‘Preset 2018’은 관람객의 조작에 반응하는 작품이다. 조작에 따라 사운드의 파형이 변화해 소리를 만들어 낸다.

무료 관람이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이보람 기자

지역 예술인들의 축제 내일 ‘팡파르’

광주예총 아트페스티벌 이틀간 5·18민주광장에서
국악·무용 등 20여개 프로그램... 전시는 22~31일

지역 예술인들의 축제 제9회 광주예총 아트페스티벌이 오는 12일부터 진행된다.

올해도 공연과 전시 파트로 나뉘 열리는 행사는 12~13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5·18민주광장에서 공연파트를 선보이고, 이어 22일부터 31일까지 광주예총회관 전역에서 전시를 펼친다.

“놀다, 즐기기, 감동하다”를 주제로 열리는 공연페스티벌에서는 국악, 무용, 연극, 음악, 영화 등 20여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먼저 12일 오후 6시 강숙자 오페라단의 초청공연 오페라갈라로 축제의 서막을 연다. 이어 관현악 앙상블 ‘프로젝트 더 울림’의 연주와 비상무용단의 현대무용 ‘운명의 경계’로 식전 공연이 진행된다. 오후 7시 개막선언 후 뮤지컬 ‘시카고’, 가야금병창, 한국무용, 판소리 ‘어사기’ 등이 이어지고 광주영화협회의 고전영화 OST 상영에 이어 대미는 미르메르 다이나믹 퍼포먼스의 태권무 ‘유관순’이 장식한다.

13일에는 오후 6시 아리문화예술단

의 흥겨운 난타공연을 시작으로 서영무용단의 한국무용 ‘풍류’, 광주음악협회 합창의 향연, 광대연희예술단 풍물놀이, 아이돌그룹 힌트와 진국이, 김미연, 김은미가 흥겨운 무대를 선사한다.

밤 8시50분부터 진행되는 불꽃쇼 ‘태양의 조각’은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다. 예술이 불꽃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의미를 담아 5인이 펼치는 환상의 불꽃쇼와 불꽃놀이로 마무리 된다.

공연파트 총감독을 맡은 정순기 광주연극협회장은 “지역 예술인들의 공연 축제이지만 시민들과 함께 즐기면서 순수공연예술의 맛을 나누자는 취지로 마련했다. 많은 시민들이 함께해서 예술의 즐거움을 나누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역 예술인들의 축제 광주예총 아트페스티벌 ‘파트 1’이 오는 12~13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5·18민주광장에서 열린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예총 아트페스티벌에서 큰 호응을 얻었던 ‘안중근-역사 속으로’ 공연 모습.

한편 22일부터 열리는 아트페스티벌 전시는 백련갤러리에서 120~130여점의 작품으로 메인 전시를 꾸미고, 야외 정원에 조각품이 전시되며, 레지던시 작가들의 오픈갤러리도 마련된다.

지호갤러리에서는 작년 문화예술상 수상작가 4인의 기념전이 마련돼 20여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전시파트 총감독을 맡은 한갑수 광주예총 부회장은 “광주예총 건물 전체가

페스티벌 공간이 될 것”이라며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그동안 침체된 입체분야 작품들을 엄선해 선보이는 자리를 마련해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문의 062-528-9207. /이연수 기자

2018년도 신규협력업체 모집

골드클래스(주)에서는 경쟁력 있는 전문건설업체를 발굴코자 협력사 신규모집을 실시하오니 등록을 희망하는 회사는 아래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등록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모집분야

가. 모집부문

-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해당 전문건설업체
- 2) 건축, 토목, 조경, 기전, 자재 등(첨부파일 참조)

나. 자격조건

-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등록 또는 면허를 취득한 업체로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76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기준에 있지 아니한 업체
- 2) 신용등급 B, 현금흐름등급 B 이상(이크레더블 외 신용평가 전문업체 동일등급 가능)
- 3) '17년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40% 이내(자재업체 제외)
- 4) 건설업 영업기간 3년 이상

2. 등록기간 및 세부항목

가. 등록기간 : 연중상시

나. 제출서류 : <http://www.goldclass.co.kr> (팝업창 확인)

3. 접수처

가. E-mail 접수 : iomeg2@hanmail.net(외주) didinii@naver.com(자재)

나. 전화 : 070-4343-6350(외주-조달팀 장승권주임) 070-4343-6320(자재-조달팀 강신애과장)

2018년 신입 및 경력직 수시모집

1. 신입 및 경력직 모집부분 및 응시자격

모집구분	지역	인원	지원/우대사항
공사관리팀	건축(공사,공무)	경력	00명 - 공동주택(아파트)/주상복합/오피스텔 - 시공업무 경력 유경험자 - 모집부분 관련 자격증 소지자 (신입:필수) - 초대졸이상 졸업자
	안전관리	신입	
	품질관리	경력	
고객지원팀	설비	의왕	0명 - 공동주택(아파트) A/S관리 경력자
	현장하자 관리직	경력	

2. 전형절차 : 서류전형→면접진행→최종합격 및 입사

3.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기술인협회 발행분)

4. 접수방법 및 기간

-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 (lim9499@hanmail.net)
- 접수기간 : 채용시 마감

5. 문의사항 : 총무업무팀 062-233-3999 (내선102)